

# 나주SRF 갈등 해결 주민 뜻 결집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2년 째 빚어 온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17일 열린 민간협력 거버넌스 9차 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SRF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 후 주민수용성 조사 실시안을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이다.

26일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나주혁신도시 내 한국인터넷진흥원 강당에서 열린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 결과 시민보고회'에서 이같이 주민 합의점이 도출됐다.

이날 보고회는 주민 900여명이 강당과 복도, 계단까지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다수 주민들은 범대위가 2017년 9월부터 투쟁해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인 '주민수용성 조사안(주민직접투표 70%+공론화 조사 30%)' 실행을 통해 발전소 가동을 저지하

## 대책위 보고회 참석 주민들 '거버넌스 결정' 존중 오늘 10차 거버넌스서 5자간 합의서 작성 유력

기로 의견을 한데 모았다.

그동안 시험가동에 결사반대했던 주민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발작 양보함으로써 '발전소 3개월 시험가동'이 실시될 것이 유력하다.

이 같은 주민 합의점 도출은 범대위 주도로 지난 1월 출범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능력이 빛을 발하면서 가능했다.

범대위는 시험가동을 겸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민 불만 해소를 위해 '시민 참여형'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험가동은 여름 방학 기간이 낀 오는 7~9월께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SRF 시설 가동 내지는 매물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발전소를 중심

으로 한 '반경 5km 내' 주민수용성 조사 범위는 5km 내 법정 리·동 주민 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주장해 온 안을 나주시가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27일 혁신도시 내 전남 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10차 거버넌스'를 열고 주민수용성조사 대상 범위와 환경영향조사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세부방안이 확정되면 거버넌스 5개 이해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에 이룰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편 환경 유해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2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

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 사업비 2700여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이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 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침투부하보일러 2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사용 연료(SRF)의 97%가 광주 등 타 지역 생활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주지역 쓰레기로 만든 연료는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감이 크다.

또 준공 3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가동 때 배출 기준치 이내이지만 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연료를 '수소 연료전지' 내지는 'LNG 100%'로 전환할 것과 '타 지역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시

## 광주서 화장품 상습절도 고교생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화장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고등학생 A(18)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3월17일 오전 10시11분께 광주 북구 모 화장품 판매점에서 파운데이션을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립스틱 등 화장품 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얼굴 화장을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매장에 손님 행세를 하며 들어가 화장품을 걸듯 주머니에 넣고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 점심시간 교회서 현금 훔친 5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교회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2시33분께 광주 북구 모 교회 예배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함에서 20만 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목사와 신도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순간 욕심이 나 현금함을 털었다"고 진술했다.

## 술집서 화풀이한 불법체류 몽골인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순찰차 뒷좌석을 부순 혐의(업무방해·폭행·공용물건손상)로 불법체류 몽골인 A(42)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술집에서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다 종업원·손님에게 욕설하며 주먹질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 순찰차 뒷좌석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최근 건설현장 토목공사를 한 뒤 임금 11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년 전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A씨를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임행택 기자

## '주먹질·욕설' 경찰관 폭행 만취 남성들 덜미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박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시43분께 광주 광산구 한 술집 앞 길에서 '폭행을 당한 시간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47)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만취 상태로 길에 누워 있었으며, A경위가 일행에게 박씨의 이름을 묻자 갑자기 주먹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경찰서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다치게 하고 경찰관을 때린 손모(41)씨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손씨는 이날 오전 0시15분께 광주 광산구 모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에게 집시를 던져 다치게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53)경위에 게 박치기한 혐의다.

조사 결과 만취한 손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 B경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경찰서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뺨을 때린 유모(61)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4분께 광주 광산구 모 시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모욕하고 만류하던 C(25)경장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유씨는 경찰관을 비하하는 발언에 이어 심한 욕설을 반복했으며, 귀가를 권유하던 C경장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행택 기자

## 농어촌공사,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한국농어촌공사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농어촌공사는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과 긴급조치를 위해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는 예년 보다 짧으면서도 장마전선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예보됐다.

농어촌공사는 오늘(26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첫 장맛비가 내리고 제주와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령되자 시설물 점검 119센터와 지방기술지원단 운영을 상시 긴급지원 체제로 전환했다. 또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해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대비체제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장마에 대비해 지난 5월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에 따라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경계수준은 '주의 단계'로 섬 지역을 제외한 각 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확대될 경우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전파와 재난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서은홍 기자



장맛비 속 출근하는 시민들 장마가 시작된 26일 오전 광주 서구 치명동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전남 7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 '장마 북상' 전남 호우특보 확대

장마가 시작된 26일 전남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가 확대됐다.

광주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30분을 기해 완도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다.

여수·광양·고흥·장흥·강진·해남·순천·보성·곡성·구례·화순 등 전남 11개 시·군과 여수시 거문도·초도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도 유지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강수량

은 완도 여서도 124.5mm, 장흥 49.1mm, 고흥 49mm, 강진 45mm, 순천 36mm, 보성 33.5mm, 곡성 28.5mm, 구례 25.5mm, 여수 19.9mm, 나주 17mm, 광주 15.4mm 등을 기록했다.

이번 비는 27일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20~60mm다. 동부 남해안·지리산 인근을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장마전선은 일시적으로 남하했다가 29일 다시 북상하면서 오는 30일 오전까지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광주기상청은 내다봤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의 분포에 따라 강수 지역과 강수량 변동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에 따른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